

# 「진하고 달다」 진홍빛의 탐나는 당근 ‘탐라홍’

김보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64)760-7242

당근은 크게 동양계와 서양계로 나눌 수 있으며, 모양에 따라 구로다형, 암스테르담형 등으로 나눌 만큼 색과 모양이 다양하다. 생산자는 상품성,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 소비자는 근색이 진하면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각각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모두 부합시킬 수 있는 ‘탐라홍’ 품종을 육성했다.



## ○ ‘탐라홍’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피색이 진하고 근형태가 양호하면서 근 맺힘이 좋은 품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부터 유전자원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계통에 여교배를 통하여 근장이 길면서 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중간모본 계통을 육성한 후, 다시 여러 형태의 부분 계통과 교배하여 가장 우수한 제주 Ca-7호를 선발하였다. 생산력 검정시험을 통해 수량성과 균일성을 확인하였고, ‘탐라홍’이라 명명한 후, 2017년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으며, 2019년 품종보호등록 되었다.

## ○ ‘탐라홍’ 품종의 주요 특성

‘탐라홍’의 생육기간은 150일 정도로 근 맺힘이 양호하고, 색이 진하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재배 품종인 ‘드림7’과 비교했을 때, 엽장은 9.9cm 이상 길고 엽수는 1.6개 많아 지상부 생육이 왕성하다. 어깨부분의 근경이 5.5cm로 드림7보다 넓은 편이며, 근장이 길면서 근중이 무겁다.

품종명	엽장 (cm)	엽수 (매)	근장 (cm)	근중 (g)	근경 (cm)	색도 (hue)*	당도 (°Bx)0
탐라홍	60.4	9.4	19.8	321	5.5	52.7	8.3
드림7(대비)	50.5	7.8	18.1	308	5.3	58.1	7.7

\*숫자가 낮을수록 짙은 오렌지색임

## ○ ‘탐라홍’ 품종 재배시 유의사항

당근의 상품률 향상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춘 솎음 작업이 필수적이다. 제주도에서는 겨울당근이 주로 재배되는데, 파종시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로 파종 후 본엽이 2~3매 될 때, 포기 간격 5~6cm 정도로 1차 솎음 작업을 하고, 4~5매 될 때, 9~12cm로 2차 솎음 작업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본엽이 6~7매 될 때 15cm로 최종 솎음 작업을 완료한다.

적기에 솎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 비대가 늦어지고 수확기가 되더라도 상품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적기에 솎음 관리는 필수적이다.



수확 모습 및 단면 형태 좌. ‘드림7’(대비), 우. ‘탐라홍’